

같이 보기

: 고객과 함께, 건강한 세상①

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협력사 근로자 보건관리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도시인 울산광역시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인 S-Oil을 비롯, SK에너지를 시작으로 종합 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 현대자동차를 기틀로 한 현대그룹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과 조선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삼척동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굴지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기업들 대부분(원청을 포함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건강진단과 보건관리를 울산산업보건센터(이하 울산센터)에서 책임지고 있다.

오랜 세월 공업도시로 성장해온 도시인 만큼 사업주나 보건관리 담당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 또한 보건과 안전에 민감한 곳이 울산광역시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를 가진 기업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울산센터는 울산대학교병원과 더불어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박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울산센터와 현대중공업이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안전경영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의 보건 관리에 대해 의논하고 고민하며 소통을 해온 시간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다.

처음 시작된 간담회는 측정결과서 제공 등 아주 단순하고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협력사 근로자의 전반적인 보건관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으로 진보하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간담회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간담회가 장장 4시간이나 이어질 만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1. 협력사 업무상 질병, 유소견자 발생현황 확인과 사후관리
2.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 방안
3. 기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현대중공업의 관리·감독 범위

4. 안전보호구 및 개인소모용품관리

5. 재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

이번 간담회는 위의 내용을 주제로 무려 두 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최근 정기 간담회가 개최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협력사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다.

협력사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먼저 고민하고 소통의 손을 내밀어주니 건강진단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는 환영할 일일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매년 4회, 분기별 1회를 목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더욱 왕성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대중공업은 물론 협력사 근로자의 보건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